

900만명 돌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흥행 대성공

31일 폐막...목표 관람객수 달성·지역경제 활성화·시민 자긍심 높여 오천그린광장서 폐막식... '시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행사'도 진행

전국에서 900만명 이상이 다녀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오는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생태도시 순천을 제대로 각인시킨 이번 박람회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연일 손님들로 가득차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무엇보다 도시를 사람이 살며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9일 "오는 31일 오천그린광장에서 214일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일원에서 치러진 박람회의 폐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이달 7일 목표 관람객 수인 800만명을 달성한 이후 15일 만에 900만명도 돌파할 만큼 전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10년 만에 치른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순천시는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

는 뜻을 담아 폐막식 주제를 '새로운 시작 THE (더) 높게'라고 정했다.

폐막식은 31일 오후 4시 30분 식전 공연에 이어 250명으로 꾸민 기수단이 입장하며 공식 행사의 막이 오른다.

오천그린광장 관람석은 '새로운 시작 더 높게'라는 문구의 카드 색연이 수놓을 예정이다. 노란 규 시장은 이번 박람회의 흥행은 '시장, 공무원, 시민의 삼합(三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박람회 성공에 힘을 보탠 28만 순천시민과 자축하는 의미로 '시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행사'도 폐막식과 함께 열린다.

폐막식이 시작하기 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오천그린광장 주차장에서는 '시민화합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공예 공간이 마련되고 한복 패션쇼와 시민 장기자랑 등도 이어진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오는 31일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폐막한다. 지난 주말 전형적인 가을날씨를 맞아 많은 관람객들이 순천만국가정원 내 호수정원을 올라가고 있다. <순천시 제공>

노 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순천은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박람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금껏 순천정원박람회

를 사랑해 준 국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화합과 감사의 장,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자리에 함께 해주면 더욱 뜻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람회 조직위 측은 폐막 당일 박람회장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입장은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강기정 시장, 대우위니아 대책 건의...김영록 지사, 의과대학 신설 촉구

경북도청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김 지사 '전남형 만원주택' 발표도

"전남은 사·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의료 여건이 가장 열악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지역민의 최대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실제로 전남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강진의료원'은 의과 의사가 부족해 지난 7월부터 휴진에 들어갔으며, '연봉 3억원, 주 4.5일'의 파격적 근무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의사가 없습니다."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에 의과대학을 꼭 신설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하며 열악한 전남의 의료 여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위니아 생산 정상화를 위한 긴급 공적자금 200억원 투입,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6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

부) 40억원 등 위니아와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은 "대우위니아그룹 사태로 인한 지역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산업위기 선제 대응 특별지역·고용위기 지역 신속 지정과 요건 완화, 근로자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권 대출 상품 개발 대책 등도 건의했다.

강 시장은 또 지방자치권 강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 기준을 폐지하되 기구 설치 일반 요건(1국 4과 이상)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각 시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토론 자리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한 지자체 우수사례로 '전국 최초 청년 맞춤형 전남형 만원주택'을 발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 사·도지사 등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도내 인구 감소지역 16개 군에 총 1000호의 청년·신혼부부 특화형 임대아파트(전용면적 60㎡/84㎡)를 신속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증금 없이 시세보다

98% 저렴한 월 1만원 임대료만 내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가 출산을 하면 거주 기간을 3년씩 연장하고 육아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부 물량은 전용면적 84㎡를 제공한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최장 10년 거주 시 절감된 주거비 약 7000만원은 내집 마련 종잣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이밖에도 ▲지방행정부지사(1급) 조기 신설과 국 설치 기준 완화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가업상속 시 공제액을 현재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교육부 교육재정 합리화 계획 조속 실행 ▲사·도의 자체 계획 수립 시 자율성 보장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7개 사·도지사를 비롯해 국무총리, 행안부·교육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조직권 확충 ▲지방입법권 강화 ▲기회발전특구 추진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 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박진표 기자 lucky@

폐막 앞둔 전남수목비엔날레 40만명 관람

'대학생·어린이 수목제' 호응...아트마켓·수목그리기체험 인기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지난 26일 누적 관람객 4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참신한 전시연출 기획으로 수목에 현대미술을 접목해 다양한 계층의 생수목제, 어린이 수목제 등 수목을 대중화하기 위해 참여층을 넓힌 게 인소문을 타며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노수·오용길·장욱진·백남준 등 유명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인공지능 수목화, 아트마켓·수목

그리기 체험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며 단체 및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 것도 한몫 했다.

이건수 총감독은 "뜨거운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립니다"며 "세계 유일 수목비엔날레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수목의 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송고한 조화속에서'라는 주제로 목표와 진도 등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숙소에 경사로 설치

전남도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시·도선수단의 안전과 휠체어 이동 편의를 위해 선수단 숙박업소의 출입구, 객실 입구, 화장실 등에 휠체어 입시경사로를 설치한다.

전남도는 체전 경기 일정과 대진표가 확정된 지

난 9월 사·도선수단의 숙소 예약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후부터 전라도장애인체육회와 협업해 숙박 상황을 파악하고 휠체어 경사로 수요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국장애인체전 참가선수단 9578명 중 총 1697명의 선수가 경사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

악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종목이 열리는 목포, 여수, 순천 등 도내 5개시와 해남, 영암, 영광, 장성 등 7개 군 숙박업소 중 휠체어 이동이 불편한 47개소의 숙박업소에 출입구 경사로 18개, 객실 입구 333개, 화장실 349개 등 총 700개의 경사로를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하루 전까지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내정

육군총장 박안수·해군총장 양용모·공군총장 이영수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김명수(해사 43기)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

정부는 29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김승겸 현 합참의장의 후임으로 김 사령관을 내정한 것은 깜짝 인사로 평가된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안수(육사 46기) 국군의날 제병지휘관, 해군참모총장엔 양용모(해사 44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엔 이영수

(공사 38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육사 46기) 합참 작전본부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육사 47기) 특수작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3사 267기) 수도군단장이 발탁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군 수뇌부를 전면 교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군 수뇌부에서 거의 사라지게 됐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돈 회수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선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각서 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국정영(330109-2XXXXXX)
- 최후주소: 나주시 통림시장2길 28-6(이장동)
- 피상속인 망 국정영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단4094호로 신청하여 2023년 10월 2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10월 30일
- 상속인: 송귀순(481010-2XXXXXX)
충남 부여군 장암면 위덕로성북3길 78-74
- 신고기간: 2023. 10. 30. ~ 2024. 1. 9.
- 채권신고처: 상속인 송귀순의 주소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칼빌딩**

월 4천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6억 (현금39억6천만원)

010-3646-8700(직거래)

신행안내

11월4일(토)

▲광주추신회 11월 4일(토) (제662차 정기 산행 고산 산마이 옛길 트레킹) 06시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시 15분 진원동 출고 및 06시 20분 -백운우계곡 06시 30분 롯데백화점 06시 40분 광주예술의전당 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